

“내년 총선 호남 30곳 모두 후보 낼 것 ‘뉴 DJ’ 세력 만들어 새정치와 대결”

천정배 의원 광주일보와 인터뷰 ‘호남 신당’ 창당 시사
“새정치에 좋은 분들도 많아 의원 절반 빼오고 싶다”
文대표, 재보선 참패 정면돌파... 호남·비노·친노 갈등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보궐선거 참패 직후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독자적 정치세력화 방침을 밝히면서 ‘호남발(發) 신당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천정배 의원은 지난 30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총선까지 광주에서 ‘뉴 DJ’(새로운 김대중)를, 잠실히 실력 있고 국민을 섬기는 인재를 모아 비전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며 “그 세력으로 총선에서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의 의석수가 30석이다. 호남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30곳의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서 시민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은 새누리당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을 봐서 후보를 내야 한다”며 “가능성을 단지 않고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당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일당 패권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비전에 있어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 확고한 개혁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 일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좋은 분들은 많다. 절반 정도 빼올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면서 “정치 개

혁과 정권 창출 등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렇게 해야만 경쟁체제를 통해 야당이 변화하고 쇄신되고, 야권의 힘이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광주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정치 결사체의 추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 총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호남 신당론’이 급부상하자 새정치연합은 그 파괴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적잖이 술렁이는 모습이다.
총선 국면에서 야권 분열구도가 재연, 호남은 물론 수도권까지 도미노식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탈당 움직임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문재인 체제가 재보선 참패로 크게 흔들리게 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의 길목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지도부가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을 정면돌파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노 진영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동안 잠복했던 계파 갈등도 불거질 조짐이다.
특히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 ‘앞마당’까지 내준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대표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호남발 신당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묘지 참배 4·29 재보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천정배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인 지난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 高2, 10명 중 7명 수시모집·한국사 필수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내년에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10명 중 7명은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관련기사 6면>
또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수시모집에서 84개교, 정시모집에서 162개교에서 각각 활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201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5만 5745명으로, 전년도 36만5309명보다 9564명 감소한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교 21개교에서는 지난해(2만5208명)보다 971명 줄어든 2만4237명을 뽑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 성경이 없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역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 민주주의·인권 후퇴 40점 수준 추락 안타까워”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2001년 수상자-바실 페르난도

홍콩=이종행기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그는 ICC의 등급 분류 판정과 관련,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5·18 광주민중항쟁이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송고한 ‘민주화의 꽃’이 피어난 지 35년이 지난 지금, 5·18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상징하는 ‘꽃씨’가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민주·인권운동 현장에서는 ‘5월 정신’으로 바탕으로 민주·인권운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그 주역이다.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소외받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의 현지 활동과 해당국가 국민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현장 취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관련기사 2·7면>

아시아인권위원장 말아

인권 개선 활발한 활동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이 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이라고 본다.”
지난달 22일 5·18 민주항쟁 35주년을 앞두고 홍콩에서 만난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바뀌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은 뒤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3월 첫 등급 분류 판정을 받았다.
ICC는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축소된 것 같다”며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반박에서 볼 땐(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자유도 순위 하락을 포함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시도 등을 예로 든 뒤 “이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등급 분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홍콩을 예로 들면서 “선거권이 없다는 점만 빼면 언론자유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측면에선 홍콩이 한국보다 낫다고 본다. 다만 인도보다 낫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 정부는 과거 군부 독재 정권과 연관이 있다”며 “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가 민주·인권국가인 아시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진정한 민주·인권국가가 되려면 경찰의 인권탄압과 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본보기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golee@kwangju.co.kr

당신이 머물고
광주가 기억할 이름

각화센터파크 서히스타힐스

서히스타힐스 STARHILLS

서히스타힐스 전세·2인
한고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모집완료

1차에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께 명품아파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의전화 062 **266-9888**

샌드힐파크 서히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주) 서히스타힐스 국제자산신학